

#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구상자의 개발 및 운영 연구

## - 제주 해녀 교구 상자를 중심으로 -

한지윤 국립제주박물관 교육담당

### I. 연구 배경

### II. 연구 과정

1. 각종 문헌 속 용어 정리 및 기준 마련
2. 사료 속에 등장하는 해녀 관련 신화와 재구성
3. 교구재의 구성
4. 교육 보조 자료의 구성
5. 교육프로그램 적용
6. 교육적 의의

### III. 연구 결과

##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구상자의 개발 및 운영 연구

### - 제주 해녀 교구 상자를 중심으로 -

#### I. 연구 배경

국립제주박물관은 기획전시가 개최될 때마다 지역의 학교 교원들을 초청하여 학교의 박물관 현장학습에 대한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기획 전시에 대한 이해를 돕는 한편, 한해 예정된 다양한 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역할도 포함된다. 이 과정은 박물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단순한 소개가 아니라, 지역 학교가 박물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청취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물관과 지역 학교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제주 지역의 초·중학교를 대표하여 참석한 교원들은 현장학습 시 교통 지원의 문제를 가장 현실적인 필요 사항으로 언급했으며, 다음으로 박물관의 교육 콘텐츠를 보다 공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 마련을 꼽았다. 국립제주박물관은 이를 계기로 박물관이 학교에 제공할 수 있는 교육 콘텐츠가 어떤 것이 있을까에 관한 고민을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국립제주박물관은 어린이 및 가족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공간을 운영하면서 축적한 체험물을 함께 묶어 학교에 우선 대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했다. 기존의 체험물만 자료로 활용할 경우, 지나치게 체험에만 국한될 수 있는 문제점이 우려되어, 학교의 교과과정에도 지속적인 연계가 가능한 <주제형 교구상자>와

〈체험형 교구상자〉로 구분하여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다(표 1). 교구상자 대여 대상은 초·중학교를 우선으로 하고, 기타 관련 교육기관 및 유관 기관에서도 대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자 했다. 또한, 초등학교의 경우 사회과 수업 활용, 중학교의 경우 자유학기제와 창의적 재량활동과의 연계에 초점을 맞췄다. 그리고 〈주제형 교구상자〉는 단계별로 주제를 개발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1단계 사업으로 〈우리놀이상자〉를 개발하였다. 〈우리놀이상자〉는 옛 문헌 혹은 그림 속에 등장하는 과거의 전래놀이에 대한 해설과 함께 학급 혹은 그 이상의 단체 학생들이 모둠별로 관련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세트형 교구로 제작하였다. 관련 문화재의 설명과 함께 놀이의 유래, 놀이 방법 등을 정리한 해설도 함께 수록하였고, 교과과정 활용 시 교사의 교육 준비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영상자료 및 프리젠테이션 자료 등도 함께 제공하였다.

2014년 1단계 사업의 시작과 함께 학교 교원들을 초청하여 학교 활용 방안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설명회에 참가하지 못한 지역의 학교들을 직접 찾아가 설명회를 갖기도 하였다. 설명회 개최와 학교 방문, 교구 사용 후 결과보고서의 설문 내용을 요약하면, 대체적으로 교구 상자 내용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으나, 교구상자의 무게 등으로 인해 이동의 문제점이 불편 사항으로 제기되었다. 향후 이는 교구재를 분할하여 대여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이외에 대체적으로 〈주제형 교구상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지역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교육 자료의 필요성이다. 대부분의 교원들은 현재 제주도 초등학교 3·4학년 사회과와 연계하여 사용되는 지역교과서인 「아름다운 제주특별자치도」의 시행과정과 연계한 제주 지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교구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따라서 〈주제형 교구상자〉의 2단계 사업은 초등학교 3·4학년 군에서 활용되고 있는 지역 교과서 구성 내용 중에서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을 토대로 자료 조사를 진행하였다(표 2). 특히, 당시에는 제주도 전역에서 제주해녀 문화를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2016년 11월 등재)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었고, 국립기관으로서 제주 해녀 문화의 교육적 접근과 그 문화적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교구재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표 1. 국립제주박물관 보급형 교구상자 <상자를 열면?> 1단계 사업 개발 현황 (2014)

구분	주제	교구내용		구분	주제	교구내용	
주제형 개발	우리놀이상자 2세트	단원 김홍도 풍속화첩 : 고누놀이	5세트	체험형 개발	탁본체험상자 2세트	제주목 관아 출토 기와(2종)	
						백제 산수무늬 전돌	
						신라 보상화무늬 전돌	
						모건도	
						성산관일	
		기산풍속도첩 -종경도 치는 모양 : 승경도	5세트		목판체험상자 2세트	김홍도 무동	훈민정음 언해본 집자
		기산풍속도첩 -쌍록 : 쌍록놀이	5세트			김홍도 서당	제주도 문자도(효)
		기산풍속도첩 -죽방울 받기- : 죽방울 받기	5세트			김홍도 고누놀이	김홍도 벼타작
						삼강행실도 루백포호	김홍도 자리짜기
						대동여지도 중 제주도	김홍도 씨름
		칠교 10세트	10세트			각저총 씨름도	김홍보 활쏘기
							대동여지도 중 제주도

표 2. 아름다운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련 내용 구성 요약

구분	대단원	소단원
사회 3	2. 촌락의 생활 모습	촌락이 자리 잡은 곳과 촌락 분포
		어촌 주민들의 생활 모습
		촌락의 산업
	3. 변화하는 촌락	촌락의 옛날과 오늘날
		어촌 마을의 변화
사회 4	3. 지역 사회의 발전	상징물에 담긴 우리 지역의 특성

## II. 연구 과정

### 1. 각종 문헌 속 용어 정리 및 기준 마련

<제주해녀상자>의 개발은 문헌에 등장하는 해녀와 관련 기록을 찾는 것부터 시작하였다. 주로 조선시대의 정사(正史)와 읍지(邑誌)류 등에 등장하는 잠녀(潛女)와 해녀의 기록을 조사했다(표 3). 조사자료는 제주해녀박물관에서 2009년에 발간한 보고서 「제주해녀사료집 원문」을 일부 참고하였다. 지금까지 전해지는 사료를 보면 해녀는 '잠녀(潛女)' 또는 '잠수(潛嫂)'로 불려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가 해녀(海女)라는 명칭과 함께 최근까지 사용해 오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를 통해 2015년 1월부터 '해녀'로 통일해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잠녀



라는 용어 사용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은 교육 활동 과정에서 비중 있게 설명하고, 전체적인 용어 사용에 혼돈이 없도록 하고자 <제주해녀>로 정리하여 개발하였다.

표 3. 문헌 속 해녀에 관한 기록

사료명		내용
제주풍토기(이건)	1629	海産只有生鰈烏賊魚粉藿玉頭魚等數種又有名不知數種外更無他魚其中所賤者藿也採藿之女謂之潛女 “~곽*미역을 채취하는 여자를 잡녀라고 한다.”
탐라지(이원진)	1653	鮑作 - 泳水採取之業男女多土風以泳女作妾爲能事依勢者圖免官役只令子子無憑者獨當進上之役徧苦莫甚通同均役似可 포작鮑作: 물에 들어가 어물을 잡는 일을 하는데 남자는 적고 여자가 많다. 고을의 풍속에 잡녀潛女를 첩으로 얻는 일을 능사로 하고 세력에 의지하는 자는 관가의 부역을 면하여 자식이 없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만 진상하는 노력에 동원되니 괴로움이 매우 심하다. 균역법을 두루 시행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남사일록(이증)	1680	浦作之役比前尤苦本州貢案別進上槌鰈條鰈引鰈司宰監貢物大中灰鰈並一萬八十餘貼烏賊魚一千七十餘貼皆取辦於三邑浦作其他海菜守令以廉價勸買復令此輩買販於陸地倍價督納以爲肥已之資歲增月滋潛女鮑作輩處處訴冤添目傷心有如是夫而渠輩非海採則亦無以賴生猶不得不已其情感矣 포작浦作의 역役은 이전에 비해 더욱 괴로워졌다. 본주本州의 공안貢案에는 추복槌鰈, 조복條鰈, 인복引鰈을 따로 진상進上하는데, 사재司宰가 감독하는 공물은 대중회복大中灰鰈이 아울러 1만 80여 첩, 오징어 1천 70여첩인데 모두가 삼읍三邑의 포작浦作으로부터 거두기에 힘쓴다. 기타 해채海菜는 수령守令이 헐값으로 억지로 사들여서 다시 이들에게 육지에다 내다 팔아오게 하여 곱 값으로 독려하여 받아서 자기를 살찌게 하는 밀천으로 삼는다. 세월이 지나가자 잡녀潛女와 포작배浦作輩가 곳곳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였는데, 참혹하고 상심함이 이와 같았음에랴. 그러나 그들 무리는 바다에서 따지 않으면 또한 살아갈 수가 없으니 오히려 그 상정이 딱함이 그치지 않는다.
지영록(이익태)	1694 ~1696	進上槌引鰈專責於採鰈潛女九十名而老病居多不能支堪採藿潛女多至八百游潛水中深入採藿無異採鰈女 진상하는 추인복(말린 전복)을 전복 잡는 잡녀 90명에게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했는데 늙고 병들어 거역가 담당을 할 수 없게 되었다. 미역 캐는 잡녀가 많게는 8백 명에 이르는데, 물 속에 헤엄쳐 들어가 깊은 데서 미역을 캐는 것은 채복녀나 다름없다.
숙종실록 37권	숙종 28년 (1702) 7월 12일조	“所謂漁戶兼行船格妻，稱潛女，一年納官者，浦作不下二十疋，潛女亦至七八疋，一家內夫婦所納，幾至三十餘疋 제주 수신(守臣, 수령)의 장계(狀啓, 왕에게 보고하는 문서) 중 일부: 이른바 어호漁戶로서 배를 부리는 일을 겸하는 격군(格軍, 뱃사공을 돕는 사람)의 아내는 잡녀潛女라고 일컫는데, 1년 동안 관아에 바치는 것이 포작鮑作은 20필疋을 밀들지 않으며, 잡녀潛女도 또한 7, 8필에 이르게 되니, 한 가족 안에서 부부夫婦가 바치는 바가 거의 30여 필에 이르게 됩니다.
탐라순력도 (이형상)	1702	[병당범주] 취병당에서의 뱃놀이 모습을 그린 그림으로 용두암 부근에서 해녀들의 잠수 작업 광경이 그림으로 표현됨 ※ 그림설명에 잡녀潛女로 기록됨



사료명		내용
남한박물(이형상)	1702	女役甚重 官有潛女案 進上藿鰓皆責於此
		여자의 역할이 매우 무겁다(女役甚重). 관에 「잠녀안(潛女案)」이 있는데 진상하는 미역, 전복은 모두 여기에 책임을 지운다.
장계 병와전집(이형상)	1702	島中風俗男不採鰓只責於潛女
		이 섬의 풍속은 남자가 전복을 채취하지 않고 그 책임이 잠녀에게 있을 뿐입니다.
정조실록 1권	정조 즉위년 (1776) 5월 20일조	其一, 鮑作潛女京納刁蹬之弊, 嚴加禁斷也.
		잠녀가 포작(鮑)한 것을 서울에 바칠 때에 조등(刁蹬)하는 폐단은 준엄하게 금단을 가하는 일입니다.
탐라록(이원조)	1843	如拳漁船點點往來招潛女數十人採納蔘鰓
		잠녀(潛女)를 불러들이니 수십 인이 해삼과 전복을 캐서 주었다.

※ 제주해녀박물관, 「제주해녀사료집 원문」(2009), 내용 참조.

## 2. 사료 속에 등장하는 해녀 관련 신화와 재구성

일만 팔천 신들의 고향 제주는 신화의 원형이 살아 있는 곳이다. 신화란 신성한 존재에 관한 이야기로 역사적, 현실적 이야기가 아니라 신비롭고 초월적인 존재들, 즉 신들이 세계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질서와 제도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제주도는 오랫동안 격절된 공간으로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고립의 공간이었으며 바다에 발이 묶인 속박의 공간이었다. 이러한 단절과 고립은 제주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런 연유로 우리 민족의 고대 신화는 제주도에서 그 원형을 오롯이 유지하게 됐던 것이다. 고대 신화는 무속신앙을 기반으로 생성된 것이기에 고향에서 심방, 즉 무당의 입을 통해 면면히 계승되어 왔다.<sup>1)</sup> 특히, 섬이라는 자연 환경 때문에 제주에는 바다와 관련된 신화들이 전승되어 왔는데, 해녀 관련 신화를 요약하여 교구상자의 내용에 일부 반영하게 되었다. 제주에는 해녀 관련 몇 개의 설화가 전해지고 있는데, 「제주풍토기」(이건, 1629), 「탐라지」권3(이원조, 1841)에는 〈산호해녀〉가 기록되어 있으며, 「남국의 전설」(진성기, 1981)에는 〈산호수와 마마신〉,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에서 발간한 「제주설화집성」(김영돈, 현용준, 현길언, 1985)에는 〈용궁올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간한 「제주해녀」(1996)에는 〈구슬할망〉, 〈만행이 할머니〉, 〈용궁올레〉, 〈산호해녀〉 관련 설화가 기록되어 있다. 또한, 제주 해녀들은 영등달이라고 일컫는 음력 2월이 되면 영등신에게 풍어와 해상의 안전을 기원하는 〈영등굿〉을 여는데, 영등신은 음력 2월 1일에 제주도로 들어와 같은 달 15일이면 우도를 거쳐 본국으로 돌아가며 제주도에 머무는 동안 바닷가를 돌면서 미역, 전복, 소라 등의 씨를 뿌려 바다를 풍요롭게 만들어 준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영등신의 유래를 담은 〈영등본풀이〉도 전해지고 있다(표 5).

1) 김순이, 『제주신화』(서울: 여름언덕, 2016), pp.7-8.

표 4. 사료 속 해녀 관련 설화(산호해녀)

사료명	내용	
제주풍토기 (이건)	1629	【기문奇聞】 慕瑟里有一潛女未經痘者也往金露浦見玳瑁在涸水中憐之放諸海水悠然而逝如有拜謝之狀後採鱸於龍頭巖下水則見貝關照耀琪花爛熳中有一老嫗迎謝曰君活我子感恩無地遂折一枝花贈之日持此可免痘出水視之乃珊瑚花也至老死果驗
	1629	모슬리에 한 잠녀가 있었는데 아직 마마痘를 겪지 않은 사람이었다. 금로포金露浦를 지나가다가 바다거북玳瑁 하나를 발견했다. 물이 말라있는 곳에 있어 이를 불쌍히 여기고 그것을 바닷물예다 놓아주었다. 거북은 유연하게 헤엄쳐가면서 마치 고맙다고 인사하는 모양을 했다. 후에 용두암龍頭巖에서 전복을 캐는데, 물에 들어가 전복을 따는데 빛이 반짝거려 고개를 들자 보석 빛이 찬란한 가운데 한 노파가 있었다. 나를 반가이 맞으며 고맙다면서 말하기를, “그대는 나의 아들을 살려주어서 그 은혜에 감사할 바를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드디어 꽃 한 송이를 꺾어 주면서 말하기를 “이것을 지니고 있으면 마마痘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고 하였다. 물에서 나와 그것을 보았더니 바로 산호꽃珊瑚花이었다. 과연 늙어죽을 때까지 (마마에 걸리지 않고) 효험이 있었다.
탐라지 권3 기문 (이원조)	1841	〈대정현〉 모슬리慕瑟里에 한 젊녀潛女가 있었는데, 아직 천연두痘: 마마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금로개金露浦: 지금 서귀포시 강정동의 한 포구에 갔다가 바다거북玳瑁 하나가 물이 없는 곳에 있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 바닷물에 놓아주자 곧 유연히 가는데 감사하다고 절하는 모양 같았다. 나중에 용머리바위龍頭巖: 안덕면 사계리 바닷가 아래에 전복을 따러 가서 바다로 들어갔더니 조개궁궐이 옥꽃과 같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가운데에 한 늙은 할머니가 있었는데, 감사히 맞아들이면서 말하기를, “그대가 내 아들을 살려주었으니 감사하는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라고 하고, 마침내 한 가지의 꽃을 꺾어 주면서 말하기를, “이것을 지니고 있으면 천연두를 면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물 밖으로 나와 그것을 보니 산호꽃이었다. 늙을 때까지 과연 천연두를 겪지 않았다고 한다. <sup>2)</sup>

표 5. 영등본풀이의 개요와 내용

구분	내용	
영등 본풀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고문헌] 『남국의 무가』 (진성기, 1968) 『제주도의 영등굿』 (현용준, 『한국민속학』1, 민속학회, 1969)	<p>[개요] 음력 2월 초하루에 제주도에 들어와 바닷가를 돌면서 미역·전복·소라 등 해녀 채취물의 씨를 부려 풍요를 주고, 어업과 농업에까지 도움을 준 뒤, 2월 15일에 떠나간다는 영등신의 내력담이다. 영등신에 대한 곳은 마을에 따라 2월 초하루에 영등환영제를 하고 2월 13일에서 15일 사이의 한 날에 영등송별제 또는 영등손맞이라 하여 마을곳으로 별인다. 제주도 무속신화는 해당신에 대한 곳을 할 때 심방(무당)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영등본풀이」는 영등굿을 할 때 심방이 노래하는 것은 볼 수 없다. 다만 심방들에 의해 구전되고 있을 뿐이다.</p> <p>[내용] 영등신은 본래 제주도 한경면 판포리의 어부였다. 하루는 고기잡이를 하다가 바람에 밀려 표류하여 외눈박이섬에 표착하였다. 외눈박이는 눈이 하나만 달린 괴인으로 사람을 잡아먹는 종족으로, 그는 이들과 같이 살게 되었다. 얼마 뒤, 제주도의 한림읍 수원리 어부들이 표류하다가 이 섬에 왔는데, 외눈박이들은 좋은 찬거리가 왔다고 그들을 묶어 가두고 먼저 온 판포리 어부더러 지키라고 하였다. 판포리 어부는 동향사람을 동정해서 풀어주고 집에 다다를 때까지 ‘관음보살’을 염불하며 돌아가라고 가르쳐주었다. 수원리 어부들은 지시대로 염불하며 노를 저어 수원리 앞바다까지 무사히 오자, 그만 방심하여 염불을 그쳤다. 다시 대풍이 일어 어부들은 외눈박이섬으로 되돌아오고 말았다. 이에 판포리 어부는 이번에는 문턱에 들어설 때까지 염불하기를 잊지 말라고 가르쳐 돌려보냈다. 수원리 어부들이 떠나며 은혜 갚을 길을 묻자, 그는 “당신들을 살려 보낸 죄로 나는 외눈박이 손에 죽는다. 그래서 매해 정월 그믐에 소섬을 거쳐 2월 초하루에 수원리에 갈 것이다. 나는 가면서 보말(고동의 일종)을 까먹으며 갈 것이니, 보말 속이 비었거든 내 가는 줄 알고 치제하라.”고 하였다. 그 뒤로 2월이 되면 보말 속이 다 비는데, 이를 영등신이 왔으며 영등굿을 하고 이 신을 위하는 것이라고 한다.<sup>3)</sup></p>





2) 이원조 편저, 김찬흡 외 역, 『탐라지초본(하)』, (제주: 제주교육박물관, 2008), p.10.

3) 자료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영등본풀이]

### 3. 교구재의 구성

교구상자의 주제는 크게 <잠녀에서 해녀로>, <제주의 바당과 땅을 누비는 만능재주꾼, 제주 해녀>, <해녀이야기-산호해녀>, <나눔이 넘치는 해녀마을>, <해녀들의 사랑방>, <해녀와 옷>, <해녀, 도구로 무장하다>, <호오이~해녀가 보내는 신호>, <출가해녀>, <해녀의 멜로디>, <해녀, 힘을 모으다>로 나뉜다. 그리고 다양하고 풍부한 신화가 존재하는 제주도에서 해녀와 관련된 신화 중 하나인 <산호해녀>의 내용을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정리하였다. 교구는 2008년 12월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료 제10호로 지정된 15점(해녀박물관 소장 문화재로 가장 오래되고 출처가 분명한 것을 선별해 기능별로 1점씩 지정함)의 관련 문화재를 재구성하기로 하였다. 물소중이, 물적삼, 물체, 물수건, 까부리, 테왁망사리, 족쇄눈(※교구제작 제외), 쉼눈, 눈광, 빗창, 종개호미, 까꾸리(호맹이), 작살, 성게채, 성게칼, 질구덕(※교구제작 제외) 등을 복제하였다. 또한, 과거와 현재 해녀의 옷을 비교 관찰할 수 있도록 오랫동안 고무 해녀복을 제작해 온 어촌 마을의 제작자에게 의뢰하여, 성인용과 어린이용으로 구분하여 고무 해녀복을 제작하였다. 제시한 교구 외에도 활동의 학습 보조 자료로 사용할 활동지와 기술이 발달하기 이전 해녀들의 필수품이었던 물옷의 제작 원리를 알 수 있는 <물옷 만들기>를 페이퍼 토이 형태로 개발하였다. 학습 보조 자료로 사용할 활동지에는 추가적으로 해녀들의 탈의장이자 쉼터 역할을 해온 <불턱>에 대한 소개는 물론, 해녀의 물질 실력이나 경력에 따라 나뉘었던 대상군, 상군, 중군, 하군 등 하나의 작은 사회를 형성했던 해녀들의 공동체를 소개했다. 또한, 바다 작업의 상징적인 소리인 숨비소리, 어획량 부족으로 살고 있는 고장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출가 해녀 이야기, 하루 종일 고달픈 노동 속에서도 해녀들의 곁에서 응원가가 되어 주었던 노동요, 일제강점기 항일해녀운동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소개하였다. 주제별 교구 구성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표 6. 제주해녀상자 속 교구 내용

주제별	내용	교구(복제품)		
해녀, 도구로 무장하다	해녀들이 사용하는 도구와 용도를 살펴보는 활동	[잡이용] 까꾸리, 종개호미, 빗창, 작살, 성게채, 질구덕, 성게칼, 테왁망사리		
			까꾸리	종개호미
				
			작살	테왁망사리

주제별	내용	교구(복제품)			
호오이~제주해녀가 보내는 신호 /해녀의 멜로디	해녀가 보내는 신호 <숨비소리>	숨비소리 녹음 자료, 해녀 노래 음성 자료 등	숨비소리.m p3		
			제주해녀노래.mp3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1호)		
옛 그림 속 해녀	1702년 이형상 목사의 「탐라순력도」 <병담범주>에는 해녀들이 테왁을 물에 띄우고 물질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으며, 잠녀潛女라고 표기하고 있음	병담범주 그림과 돋보기를 활용한 해녀의 물질 모습을 찾아보는 활동			
해녀이야기 -산호해녀	다양하고 풍부한 제주의 신화 중에서 해녀와 관련된 신화를 알아보는 활동	일러스트의 장면을 활용하여 만든 <산호해녀>영상자료			
해녀와 옷	과거의 해녀복과 현재의 해녀복의 변화와 다양한 구성, 용도를 알아보는 활동	[과거의 해녀복: 물윗] 물소중이, 물적삼, 물수건, 까부리, 물체, 뚜데기			
			물소중이	물적삼	
		[눈보호용] 쉐눈, 눈막			
			까부리	쉐눈과 눈막	
		[현재의 해녀복: 고무옷] 고무옷 상의, 하의, 모자, 오리발, 고무 물안경			
			고무옷 상·하의	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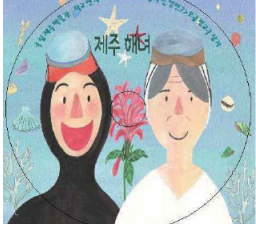
<제주해녀> 교구상자

## 4. 교육 보조 자료의 구성

교구상자의 개발과 함께 교수학습과정의 쉬운 이해를 돕는 보조 교육 자료를 함께 개발하였다. 보조 교육 자료는 교구상자 대여와 함께 학교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CD, 교육활동지, 체험용 교재로 나뉜다. 교구상자 내부에 비치되어 있는 CD는 교수학습과정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PPT와 관련 동영상 및 각종 사진 등이 함께 수록되어 있으며, 교육활동지는 교구를 활용한 수업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학습한 내용을 참가자들이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보조 교육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표 7)

또한, 과거 해녀들의 상징이자 노동복이었던 물옷의 제작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기타 자료<sup>4)</sup> 등을 기반으로 어린이들이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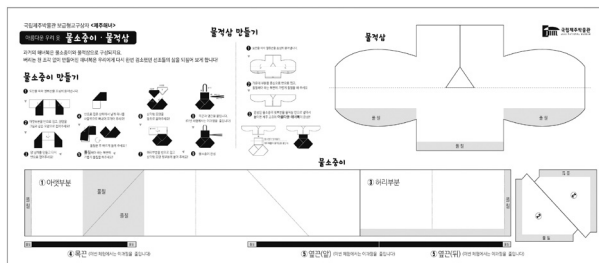
표 7. 보조 자료 상세 내용

구분	사진	세부 내용
학습 자료 제작(CD)		교육용 PPT
		해녀노래(노동요, mp3), 멸치 후리는 노래(노동요, mp3)
		산호해녀 이야기 애니메이션(AVI)
		숨비소리(mp3)
		물소중이 만들기 영상(AVI)
		고산마을 자그네 해안가 해녀들 입어준비(국립제주대학교박물관 제공)
		물질 나가는 해녀무리(국립제주대학교박물관 제공)
		물질 마친 해녀(보목리)(국립제주대학교박물관 제공)
		바다로 뛰어드는 해녀무리(국립제주대학교박물관 제공)
		작살로 고기잡은 해녀(국립제주대학교박물관 제공)
		해녀 입어 준비(국립제주대학교박물관 제공)
		해녀(국립제주대학교박물관 제공)
		해녀의 휴식(국립제주대학교박물관 제공)
		해녀도구(국립제주박물관, 총 26컷)
		해녀노래 가사집(PDF)

4) 2014년 1월 21일자, 제민일보의 [인류문화유산 제주잠녀] 6부의 "살아있는 잠녀의 기억으로 잇는 '물옷'사뭇"의 기사 일부분을 보면, '바당(바다)에서만 70년을 살았다는 한림읍 수원 이정현 할머니의 기억을 담은 이야기가 등장한다. 물소중이를 입을 때만 해도 겨울에는 물질을 하지 않았고, 한번 작업을 15분을 넘기기 힘들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냥도 이가 딱딱 하는데...(이가 덜덜 떨릴 정도로...) 고되기도 하고 추워서도 못해" 음력 3~4월은 돼야 해경을 해 미역을 조물고 작업을 시작했다. 찬바람이 불면 여간해선 작업을 할 수 없었다. 잠녀들의 오래된 궤에서는 무명옷을 여러 겹 누벼 만든 물체 같은 겂옷이 종종 발견된다. 너나없이 배고팠던 시절에 무명으로라도 물옷을 만들 수 있을 정도면 '살 만 했다'. 밀가루 포대 등 기워 만들 수 있는 것은 모두 동원됐고 검은색 물을 들이기도 했다. 물적삼이 일상화된 것도 1960년대 이후 일이다. 소매부리와 도련에 끈이나 고무줄을 넣어 몸에 맞게 조절했고 별모작 단추로 앞을 여미게 하는 것으로 젖은 옷을 쉽게 벗을 수 있게 했다(기사 일부 발췌).



구분	사진	세부 내용
교육활동지		잠녀에서 해녀로
		제주 바다와 땅을 누비는 만능 재주꾼, 제주해녀
		옛 그림 속 해녀
		해녀이야기 - 산호해녀
		해녀 마을 - 나눔이 넘치는 해녀 마을
		해녀와 옷
		해녀, 도구로 무장하다
		호오이 해녀가 보내는 신호
		고향과 잠시 이별하다, 출가해녀
		해녀의 멜로디
		해녀, 힘을 모으다
아름다운 우리 옷 〈물소중이 · 물적삼〉 페이퍼토이		〈물소중이 · 물적삼〉 페이퍼토이
		물옷 만들기 완성판



〈물소중이 · 물적삼〉 페이퍼토이 전개도와 설명서

## 5. 교육프로그램 적용

### 1)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 바다를 지켜온 제주 해녀

〈제주해녀상자〉개발과 함께 2016년 2월, 겨울방학을 활용하여 「바다를 지켜온 제주 해녀」를 주제로 초등학교 1~3학년과 4~6학년으로 나누어 각 2회씩 내부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개발된 교구상자와 보조 자료를 활용한 수업으로 〈산호해녀〉신화와 해녀의 역사에 대한 이해, 해녀의 옷과 도구들을 교구를 활용하여 관찰하고 그 쓰임새를 알아보는 내용으로 진행되었

다. 또한, 물소중이와 물적삼을 만드는 원리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활동도 함께 진행하였다. 참가한 어린이들은 각각 교육 경험에 대한 소감 발표와 함께 자신들의 삶의 돌레에서 나의 할머니 니이자, 내 친구의 할머니이기도 했던 해녀에 대한 감정과 교육을 통해 좀 더 바른 이해를 할 수 있었다는 내용 등을 각양각색의 편지글로 표현하고, 참여 어린이들과 서로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되었다.

표 8. 「바다를 지켜온 해녀」 교육프로그램 진행 과정

구분	시간	대상	내용
도입	20분	공통	잠녀에서 해녀로 / 신화 <산호해녀> 살펴보기
전개 I	45분	1~3학년	해녀의 옷과 도구들 I
		4~6학년	해녀의 옷과 도구들 II
전개 II	50분	1~3학년	종이를 활용한 물소중이 만들기
		4~6학년	부직포를 활용한 물소중이 만들기
마무리	5분		소감 나누기



도입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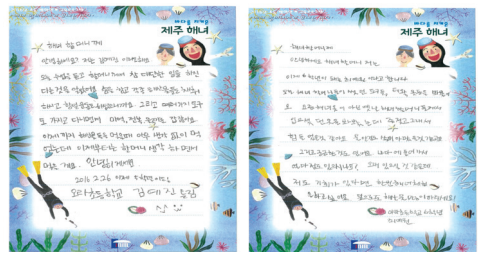
전개 I



전개 II



마무리



마무리



## 2) 보급형 교구상자의 학교 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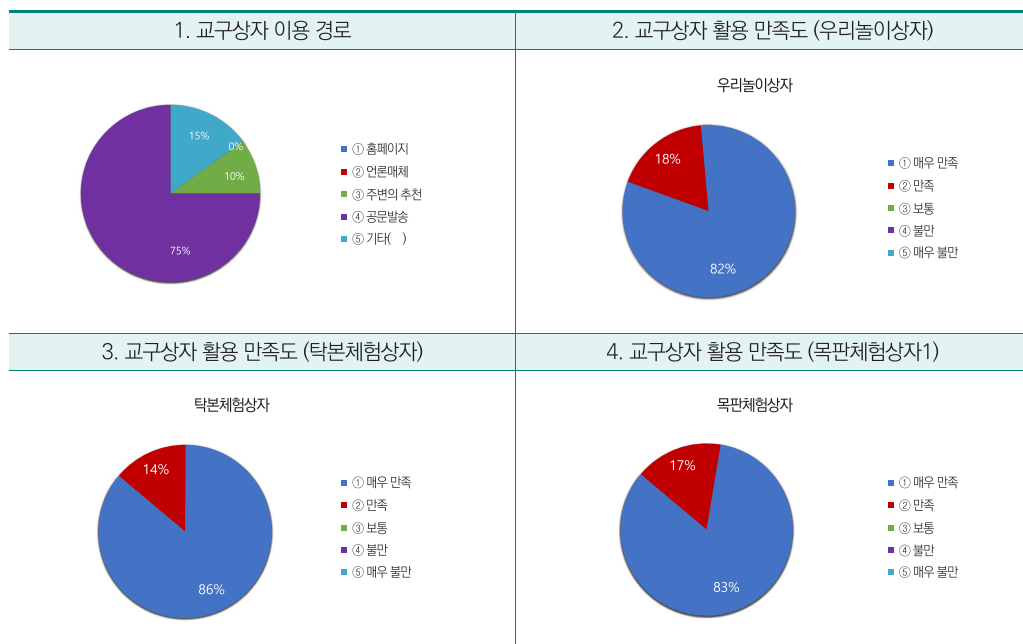
2015년 하반기에 개발된 <제주해녀상자>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학교 대여 사업을 진행하였다. 지역 어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중심으로 2016년 총 11개 학교가 <제주해녀상자>를 이용하였다. 이는 2016년 전체 교구상자 이용 학교가 30개교인 점을 감안, 약 36%가 <제주해녀상자>를 이용한 것을 알 수 있다.(표9, 10) 대여 학교 모두 사전에 박물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교사 주도하에 교과과정에 적용하였으며, 이외에도 타 지역 및 제주 지역 내 문화행사에서도 <제주해녀>를 주제로 체험부스에 활용되기도 하였다. 2016년도 한 해 운영되었던 전체 교구상자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설문에 응한 교사 20명 중에서 <제주해녀상자>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90%), 만족(10%)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전체 교구상자는 학교의 교과과정 중에 사회(75%), 미술(25%)에 집중적으로 활용되었으며, <제주해녀상자>의 잘된 점으로는 실물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에 활용되어 학생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체험 활동이 함께 진행되어 학생들의 흥미는 물론 집중할 수 있는 요소가 되었다는 의견을 주었다.

표 9. 국립제주박물관 보급형 교구상자 전체 운영 현황 (2014~2017.9월 현재)

구분	2014.10~12	2015	2016	2017. 9월 현재
전체	한천초등학교 등 7개교	월랑초등학교 등 31개교	성산초등학교 등 30개교	광양초등학교 등 14개교
해녀	-	-	동홍초등학교 등 11개교	광양초등학교 등 6개교

※ 학교 대여 현황만 정리함

표 10. 2016년도 보급형 교구상자 전체 운영 설문 분석 결과 (전체)



<p>5. 교구상자 활용 만족도 (목판체험상자2)</p> <p>목판체험상자2</p> <p>■ ① 매우 만족 ■ ② 만족 ■ ③ 보통 ■ ④ 불만 ■ ⑤ 매우 불만</p>	<p>★ 6. 교구상자 활용 만족도 (제주해녀상자)</p> <p>제주해녀상자</p> <p>■ ① 매우 만족 ■ ② 만족 ■ ③ 보통 ■ ④ 불만 ■ ⑤ 매우 불만</p>
<p>7. 교과과정과의 연계</p> <p>교과과정과의 연계</p> <p>■ ① 도덕 ■ ② 미술 ■ ③ 국어 ■ ④ 사회(역사 포함) ■ ⑤ 기타( )</p>	<p>8. 교구상자에 활용에 있어 잘된 점</p> <p>제주 해녀문화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실물이 있어 아이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됨</p> <p>주제와 관련되어 다양한 교구들이 잘 정비되어 있었음</p> <p>목판 인쇄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목판 인쇄와 김홍도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음</p> <p>각 소주제별로 실물 자료가 잘 구성되어 있어 자료 이해가 쉬웠음</p> <p>준비물이 잘 갖춰져 있어서 활용이 용이함</p> <p>재질이 고급이고 튼튼하면서도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음</p> <p>물소중이, 물적삼 학습지와 직접 아이들이 해녀의 물적삼을 입어 보는 체험활동을 통해 흥미와 주의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음</p> <p>학생들이 조상들의 훌륭한 작품을 직접 찍어볼 수 있어 아주 좋았음</p>
<p>9. 향후 교구상자에서 다뤘으면 하는 주제</p> <p>1. 제주 민요에 대한 교구상자 개발 필요</p> <p>2. 다른 시대의 역사 관련 자료 개발 필요(3명)</p> <p>3. 물소중이, 물적삼 만들기를 위한 설명이 들어간 학습자료 개발 필요</p> <p>4. 제주 여러 지역 모습의 사진이나 제주도의 시대별 변천 모습 그림이나 사진을 퍼즐 형식으로 제작한 교육 자료 개발 필요</p>	
<p>제9회 세화문화축제 '어우렁 다우렁 꿈 그릴 락' / 세화초등학교 (2016. 5. 4.)</p> <p>제9회 세화문화축제 12개 체험코너 중 4번째 부스 '조상의 일을 담은 목판인쇄', 5번째 부스 '물소중이가 뭐예요?' 코너 운영</p>	
<p>[교육주제] 같이 살아요, 우리 / 함덕 선인분교 (2016. 9. 19.~10. 19.)</p> <p>제주 해녀의 공동체 문화를 통해 학생들도 공동체 의식을 길렀으면 해서 본교 학생들은 제주 설화 및 제주 해녀 문화에 대해 1년 프로젝트로 공부하고 있음. 제주 해녀의 역사, 도구, 공동체 문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과정, 제주 해녀문화를 지키려는 단체에 대해 공부함.</p>	

## 6. 교육적 의의

2016년 11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해녀문화>를 주제로 한 교구상자의 개발은 지역의 어린이들에게 다시 한 번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나아가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해녀들이 착용했던 과거와 현재의 물옷을 살펴보고, 도구들을 탐색하는 활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제주해녀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 공동체 문화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 목표였다. 어린이들이 교구상자 활용을 통해 해녀의 공동체와 ‘학교’라는 현장의 공동체 활동과 비교하며,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나의 역할을 스스로 살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초보 해녀의 빈 망사리에 다른 해녀가 잡은 수확물을 하나씩 넣어 주는 고참 해녀의 모습, 나이 든 해녀들을 위해 만든 노후 보장책인 ‘할망바당(수심은 얕지만 해산물이 풍성한 바다)’을 지정해 나이 든 해녀들만 작업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서 어린이들은 작지만 큰 배려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불턱(해녀들이 일하는 바닷가 근처에 설치된 불을 쬌는 곳이자 탈의장)’에서 쉬면서 오고 간 이야기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지 않는 비밀엄수의 원칙에서 어린이들은 서로 간의 신뢰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 III. 연구 결과

제주해녀 문화는 세계가 인정하는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되었지만, 해마다 숫자는 줄어 들고,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다고 한다. 단언키는 어렵지만 우리는 바다에서 틈틈이 볼 수 있었던 해녀들의 물질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기 어려운 시점을 맞이할 수도 있다. 제주해녀는 제주의 모든 여성들을 대표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해녀라고 해서 단순히 바다만을 터전으로 삼았던 것이 아니라, 금채기로 정해진 물질을 할 수 없었던 시간은 밭일을 이어 온 가족 생계의 상징이었다. 일제강점기에는 국내 최대 여성항일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는 <제주해녀항일운동>의 주역이기도 했다. 그리고 한 마을을 구성했던 하나의 작은 사회였고, 해녀로 살아오면서 도움 받았던 주변의 사람들에게 항상 나눔을 실천해 왔다. 보급형 교구상자의 2단계 사업의 주제인 <제주해녀상자>는 현재 제주 사회가 겪고 있는 변화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되었다. 제주라는 지역 사회의 정체성 변화가 문화 정체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현실 속 우려들이 우리의 전통을 재발굴하고

지켜 나가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어 가는 교육적 시발점이 박물관과 학교여야 한다는 사고로 이어지게 한 셈이다. <제주해녀상자>가 쉽게 잊혀질 수 있는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배울 수 있는 작은 박물관이자, 작은 학교의 역할을 해 나가기를 바라며, 이어지는 3단계 주제형 교구상자는 지역-학교-박물관이 개발 단계에서 함께 밑그림을 그리고 제주 문화의 원형을 다양한 색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국립제주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상설도록』, 그래픽네트, 2011.  
국립제주박물관, 『탐라의 대가야나들이』, 디자인나눔, 2016.  
김순이, 『제주신화』, 여름언덕, 2016.  
김영돈·현용준·현길언, 『제주설화집성』,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85.  
김정숙, 『제주도 해녀복 연구』, 이화여자대학교교육대학원석사학위 논문, 1989.  
이원조 편저, 김찬흠 외 역, 『탐라지초본(하)』, 제주교육박물관, 20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해녀』, 1996.  
제주해녀박물관, 『제주해녀사료집 원문』, 2009.  
제주해녀박물관, 『제주 해녀 옷 이야기』, 2012.

제주해녀박물관 [www.haenyeo.go.kr](http://www.haenyeo.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ncykorea.aks.ac.kr](http://encykorea.aks.ac.kr)

제민일보 [www.jemin.com](http://www.jemin.com)

## Abstract

### **A Study on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Teaching Materials Based on Local Characteristics: Focusing on the teaching material on Jeju Haenyeo (women divers)**

**Jiyeon Han**  
Museum Educator, Jeju National Museum

In November 2016, the culture of Jeju Haenyeo (women divers) was listed on the UNESCO 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thanks to the great efforts from many experts to introduce the excellence of the culture of Jeju Haenyeo. Even before the registration, Jeju National Museum had tried some experimental education programs by using som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of Jeju Island. Based on the Jeju Chilmeoridang Yeongdeunggut inscribed in 2009 on the UNESCO list, the museum carried out an adult program on Jeju's myths and shamanistic beliefs with theories, practices and field survey. To support the local efforts for putting the culture of Jeju Haenyeo on the list, the museum also developed a thematic teaching material while adding educational values on the culture. Finding ways to strengthen cooperation between local museum and public education, the museum paid attention to the needs of schools who wanted to include the nation's history and culture in their school curricula. As a local museum, we were asked to develop and distribute educational contents based on Jeju's local culture. Among many cultural heritages, the museum focused on the culture of Jeju Haenyeo. We studied and collected documents and set a guideline for terminology. We found Haenyeo-related stories in the island's mythologies and put them in appropriate order. Thereafter, we developed teaching materials, worksheet and experience programs. We explained the history of haenyeo with the change from janmyeo (diving women) to haenyeo (women diver), the women divers in traditional paintings, the story of coral haenyeo, the community of haenyeo, the spatial functions and meaning of bulteok, the wetsuits and tools, the migration of 'chulga' haenyeo, the songs of haenyeo, and the role of haenyeo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e also developed a worksheet for better understanding and even a special tool kit to teach the process of making a wetsuit. The teaching material was first used for a program entitled “Jeju Haenyeo, the protectors of the sea” during the winter vacation in 2016. Since March 2016, the program has distributed to local schools in Jeju in the linkage with certain subjects like social studies and moral education. Some specialized schools are interested in using the materials for their study projects on local cultural heritage. In particular, teachers have shown great satisfaction with the program because they were able to utilize various practical resources in their curricula. The significance of developing the teaching material is to arouse interests in preserving local cultural heritage and to make local children feel proud. While using the materials, students can experience and understand the community of Jeju haenyeo and introspect themselves from the context of school community. It is highly expected that students can experience the value of coexistence based on respect and trust. In the future, the museum plans to develop other teaching materials based on local cultural heritage after collecting ideas and opinions from schools and local community.

**Keywords:** Museum Education, School-linked Museum Education, Cultural Heritage Education, Learning Toolkit, Teaching Material, Local Culture, Culture of Jeju Haenyeo, Jeju Haeneyo, Jeju National Museum